

다시 노란 물결... “그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 이슈

세월호 10주기

①남은 흔적들

진도 팽목항·목포신항 가보니

10주기 맞아 추모행렬 이어져
“기억하겠다는 약속 꼭 지킬 것”
녹슨 선체 앞 고개 숙여 추모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어느덧 10년. 무심히 흘러간 시간 앞에 바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팽목항에 선 시민들은 끝이 다 해진 노란 리본을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위에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다.

지난 13일 진도 팽목항에는 전국 각지 추모객들이 모여들었다. 지나온 세월을 보여주듯 바다바람에 나부끼는 추모 리본과 깃발은 색이 바래 있었지만, 깃발에 새겨진 ‘잊지 않겠습니다’는 글씨만은 선명했다.

팽목항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항구다. 참사 당시 인양된 희생자들이 옮겨져 가족들과 처음 만난 곳이다. 지금은 노란 리본 조형물과 그림 타일



진도 팽목항. 10년 전 진도 병풍도 인근 바다에서 단원과 학생 등 304명이 세월호 속에 갇혀 침몰했다. 아직도 5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을 기억하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추모객들이 노란 깃발이 휘날리는 팽목항을 찾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를 마음속에 새기며 발길을 잇고 있다.

4656장을 이어 붙여 만든 ‘기억의 벽’ 등 아이들의 자리를 대신 지키고 있다.

추모객들은 노란 리본 조형물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다. ‘기다림의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이들은 매년 다시 팽목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약속 때문’이라고 했다.

매달 팽목항을 찾겠다는 임정자(57)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잊지 않겠다’는 망자와 약속이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래를 살아가

이들과의 약속이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팽목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팽목에서 해군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김다운(31)씨는 “사고 당시 매일 밤 일기장에 구조자 명단을 적어 놓았다. 구조자가 한 명이라도 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선체가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기도 했다”며 “그때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항구에는 분향소로 사용됐던 ‘팽목 기억관’과 가족 식당, 성당 등이 대표 추모 공간으로 남아 있다. 기억관에는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추모 메시지를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방명록에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마. 이제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기억관을 둘러보던 남영희(62)씨는 “매번 ‘와야지’ 했지만 마음이 아파 차마 올 수 없었는데, 10주기를 맞아 왔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가 변한 게 뭐가 생각해보면 딱히 없다. 그 사실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소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거치소를 두르는 철책에는 노란리본 수백 개가 묶여 있고 입구 주변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다섯 명 사진이 걸려 있었다. ‘왜 구하지 않았니?’ 299명의 사망자 얼굴 밑에 적힌 문구도 눈에 띄었다. 추모객들은 생각에 잠긴 듯 그 앞에서 한참 발길을 떼지 못했다.

세월호는 지나간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포신항에 우뚝 서있었다. 뱃머리에 크게 적힌 ‘SEWOL’, 참사 시작이던 방향타, 구조를 기다리며 작은 손으로 두드렸을 창, 인양 흔적으로 갈라진 틈. 절박했던 참사 당시 흔적들이 보였다. 주변에는 선체의 파편과 관련 유형물들이 쌓여 있었다.

이날 세월호 참관을 위해 모인 방문객들은 선체를 앞에 두고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익산에서 온 소상호·한준수(15)군은 “생각보다 배가 커서 놀랐다. 저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 등을 통해 어떤 사건인지 배웠다. 세월호 리본을 가방에 늘 달고 다니며 추모하고 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15면
강주비 기자·나다운 수습기자

‘의·정 갈등’ 장기화에 지역 의료계 붕괴 위기

광주, 진료 분담 등 협력체 구성 전남, 비대면 진료 등 한시 허용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요 병원

과 공공의료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광주 대형병원들은 진료과 협업 등 교육 지책을 꺼내 들었고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은 놓여온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 등을 한시 허용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지역 대표 2차 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지역 의료체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응급 중증 환자의 수

술과 진료에 있어서는 각 병원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전향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과 응급 환자 진료·수술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나눠 맡기로 했다. 일주일에 이들은 조선대병원 권역 응급센터에서 안과 진료를 전담하고 나머지 일자 진료도 두 병원이 협의한다.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의 최근 병상 가

동률은 각기 평균 50% 초반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래 환자 역시 평소와 비교해 전남대병원은 20%, 조선대병원은 10%씩 줄었다. 전문의(교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정부의 공중보건·군 의관 파견 대체 인력까지 더해 비상진료 체계를 꾸렸지만 공백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고 있다. ▶5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호남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되겠습니다”

2024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

전남일보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전남일보는 지난 2014년 이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 교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례회에서는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도약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거 당선자와 사·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오후 2시~3시40분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4층 컨벤션홀

참석대상 :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광주·전남 초청 인사
문의 :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1)